



# 발포플라스틱 외장공법 보급에 탄력

## 에너지절약기구 단열 시공 가이드북에 게재

**발포** 플라스틱 단열재 4개 단체로 구성 된 「발포 플라스틱 외장단열협회(COA)」는 재단법인 건축환경 에너지절약기구(IBEK)의 2005년도 단열시공 가이드북에 외장단열시공법을 게재하는 양해를 얻었다. 이번 가을쯤에 공개 될 이 공법에 의해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내 신축목조주택에 4% 전후의 보급률에 머무르고 있는 발포플라스틱의 외장단열공법 시장 확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5년 후 10%, 10년 후에는 30%의 보급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5년 2월 교토의정서의 발효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에너지절약 성능의 향상이 불가결한 주택에는 차세대 에너지절약 기준 주택의 보급률을 08년도에 50%(현재는 15%)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책과 한층 에너지 절약성능을 높인 기준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발포플라스틱의 외장단열공법은 에너지절약기준에 합치되나 시공법 등이 명확치 않고, 최종 시장에서의 인지도도 불충분한 것 등으로 인하여 보급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협회는 외장단열공법촉진협의회(압출폴리스티렌폼), EPS

건재추진협의회(발포폴리스티렌), 우레탄폼공업회, 페놀폼협회가 목조주택에 어울리는 외장단열공법의 보급촉진을 위한 협력 모체로 금년 봄에 발족어 광고활동이나 공법의 교본화 등을 중점과제로 몰두하고 있다. 일정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는 교본화 된 공법을 IBEK의 가이드북에 게재하는 것으로 인해 목표에 크게 전진할 것으로 보인다. IBEK는 80년에 건설대신(당시)의 허가를 얻어 주택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환경부하 경감과 관련한 기술 개발, 지도,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 된 공익법인이다.

외장단열공법은 기존의 충전공법과 비교하여 첫째 틈새간 바람을 막는 보강금속 등에 의한 열판의 불안이나 내부 결로 등이 없고, 둘째 시공이 용이하고, 셋째 작은 집의 뒤결과 마루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고, 넷째 벽체 내의 동공화로 배선·배관 공사가 쉽고, 다섯째 단열 재시공이 용이하며, 여섯째 재활용하기 쉬운 등의 장점이 있다. 원가도 같은 단열 기밀방법(기체의 유통을 막음)과 비교하여 대략 비슷하다고 한다.

(일본 석유화학신문 2005년 7월 4일자 1면)

건설교통부령 제461호(2005. 7. 22)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다. 복합자재 관련 개정 내용을 보면 스티로폼 샌드위치판넬에 있어 철판은 도장용아연도금강판 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횡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심재는 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으로 되었다. 위 복합자재의 사용이 가능한 공장용도는 도축업 등 공장상 발화위험이 적은 65개 업종으로 정하여졌다.